

文대통령 “DJ의 안보·평화 의지 계승”

“한반도 주인은 우리” 원칙 고수... 지키는 안보가 아닌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韓평화 이뤄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인 지난 18일 “김 전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통일을 향한 담대한 비전과 실사구시의 정신과 안보와 평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추도사에서 “외교안보 상황이 다시 엄중해진 지금, 저는 김 전 대통령의 영전과 자랑스러운 민주정부의 전통 앞에서 다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평화를 지키는 안보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번영을 이뤄나가겠다”며 “국민통합과 적폐청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과제도 민주정부의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온 힘을 다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은 바탕 끝 경계를 살리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햇볕정책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갔다”며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번에 걸친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분도 김 전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안보는 안보대로 철통같이 강화하고 평화는 평화대로 확고하게 다지는 지혜와 결단력을 발휘했다”며 “이후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평화가 지켜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한반도 역사에 새겨진 김대중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지난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을 따라 남북이 다시 만나고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며 “당신이 하였던 말이 생각한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발전하는 역사에서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항상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전·현직 국회의장과 정당 5당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정숙 여사,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

성 정책실장, 진병현 정무수석비서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함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 앞서 김 여사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뉴스시스

추미애 “이겼을 때 당 개혁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당내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구성과 관련해 “힘이 있을 때 잘해보자, 물 들어올 때 노를 씩씩하게 젓지는 마음임을 이해해달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왜 이겼는데 정당을 혁신하느냐는 열려를 거둬주시고, 안정 속 개혁이라는 말처럼 이긴 힘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추 대표 측이 정발위 구성특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바꿀 것이라는 당내 우려에 대해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체질과 역량이 강화된 현대정당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좋은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공약을 잘 출하고 그것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그릇이 크고 실력 있는 야무진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정발위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발위의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난 혁신위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지방분권 준중이라든지, 핵심은 잘 지켜내겠다”며 “그러나 또 자칫 독선과 독주로 가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원칙과 경제, 균형의 원리가 그 속에서 잘 작동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정발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재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기려고 했었고, 총무본부장을 맡아 당이 탈당으로 흔들리고 어렵고 분당 위기일 때 많은 권리 당원을 모셔와서 당을 지켜준 노하우가 갖춰진 정당발전의 책임자”라고 규정했다. /뉴스시스

정경두 “레드라인, 北치킨게임 속지 위해 언급”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 언급과 관련 “대통령은 북한이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속지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1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종범 자유한국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한 부분은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그런 위기상황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범위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민방의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최인정,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확정 ‘환영’

“그러나 주인없는 잼버리가 되어서는 안돼... 스카우트 활동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유치 확정된 것을 환영했다.



최인정 의원

특히, 세계잼버리 유치에 온 힘을 다해 성공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황현 전 전북도의회 의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인정 의원은 18일 “세계 청소년들의

민족과 문화,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하고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세계 스카우트들의 큰 잔치가 새만금에서 열려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023년 8월 전북 부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Draw your Dream’이란 주제로 188개국 청소년 5만여명이 참가할 잼버리대회에 주인없는 잼버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도내 각급학교에서 스카우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문했다.

이는 지난 3월, 김승환 도교육감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주장된 바 있다.

학교 스카우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사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현재 도내에는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 소속 학교 67개교, 한국걸스카우트전북연맹 소속 65개교와 학생 총 4,479명, 지도교사 331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인정 의원은 “하지만, 이들 청소년단체는 해마다 활동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이들에게 활동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지역경제 활력 방안으로 인근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이 부안인호 방조제 지역이지만, 인근 김제와 고창, 군산 등 인근지역 자원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잼버리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뿐만 아니라 공항, 철도, 도로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잼버리대회 유치로 1,100억원의 경제효과와 함께 전북에는 생산 유발효과가 800억원에 부가가치 효과가 300억원에 달하고 1,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측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박지원 “승리 위해 바른정당과 연합·연대 가능”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8일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론과 관련해 “어떤 정당과도 선거 승리를 위해 연합,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국민의당이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 논의 여부에 대해선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선 이래 간헐적으로 의원들 사이나 당에서도 속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내년 지방선거 ‘안철수·순하규 차출론’과 관련해 “당내 인적 자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순하규 전 지사는 누구도 추천할 수 있다”고 했다. /뉴스시스

전주, 한눈에 반하다

국립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도립미술관, 전북도립과학관, 전북도립체육관, 전북도립문화관, 전북도립도서관, 전북도립박물관, 전북도립미술관, 전북도립과학관, 전북도립체육관, 전북도립문화관, 전북도립도서관, 전북도립박물관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